

# 나의 수호인의 시성식 에 참석?

독자께선 자기의 수호인의 시성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? 벤쿠버에 거주하는 교포 윤우섭박사의 10개월 된 딸 메리 조 (성 호세마리아의 이름을 따라)는, 바로 그렇게 했답니다.

2003-8-15

우리가족이 멕시코 과다루페 대성당 순례를 마치고 돌아 온 직후인 12월 초에 메리 조가 태어났다. 결혼 생활 4년 만에 태어난 3번째 아이다. 메리 조란 이름은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이름을 따라 그리고 또한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께 감사의 표시로 지은 이름이다.

집사람과 나는 오푸스 데이 창설자 호세마리아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찌감치 시성식에 참석키로 결정했다.

메리 조를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 아이에 수호인인 만큼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 이유는 간단했다. 즉 본인의 수호인의 시성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나의 경우라면 십자가의 요한 성인, 아내의 경우에는 성 아그네스 시성식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.

그래서 메리 조는 10월6일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시성식에 가게 되었다. 새벽 6시에 호텔을 떠나 7시에 성 베드로 대광장에 도착했다. 로마의 가을 아침의 특징인 쌀쌀한 아침 바람과 낮 시의에 뜨거운 햇살을 내 딸은 불평 없이 참아주었다. 두 번 우유를 먹고 두 번 기저귀도 갈았으나, 사실 대로 말하자면 시상식이 시작했을 땐 내 딸은 아주 깊은 잠에 잠겨있었다.

다음날 우리가족은 오프스 데이 단장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가 봉헌하는 감사미사에도 참석했는데 미사 후에 교황님께서 차를 타고 우리자리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지나가실 거라는 말을 들었다. 교황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 은 교황님을 뵈려고 다섯줄이 넘게 겹쳐 서기 시작했다.

집사람은 감격을 감추지 못하며 교황 님이 우리 아이를 축복하시게 주위

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좋은 자리를 잡기위해 우리보다 몇 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양보할 리가 없었다. 교황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고 있었다. 집사람은 옆에 있는 여자 분께 사정을 했다, 우리아이를 교황님께 '전달'해달라고... 그 여자 분은 고맙게도 다른 옆분에게 메리 조를 넘겨 주었고, 고맙게도 우리아이는 교황님 옆의 보안요원들 통해 교황님께 '전달'되었다.

교황님께서는 메리 조를 안아주시면서 볼에 큰 입맞춤을 해주셨다. 갓 10개월이 된 메리 조는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까닭이 없었다. 그러나 나는 그 아이가 커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황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사진으로 증명할 것이다.

메리 조가 누구보다 제일 보람 있는 순례를 하고 돌아온 것은 누가 봐도 틀림없다.

윤우섭 (벤쿠버, 캐나다)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nayi-suhoinyi-siseongsige-camseog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nayi-suhoinyi-siseongsige-camseog/)  
(2026-1-16)